

구례군 국제철인3종경기 흥행 대박 예감

22개국서 1800명 신청... 선수모집 6주만에 조기 마감

참가비 수입 9억 예상...올해부터 폴코스 승격 9월 개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국제철인3종경기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가 대박을 예감하고 있다. 선수모집 6주만에 최고한도를 달성해 조기 마감하는 등 대회시작전부터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구례군은 “올해 9월 10일 개최하는 국제철인3종경기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의 참가선수 모집이 6주만에 조기 마감됐다”고 7일 밝혔다.

구례군은 모집목표를 1200명으로 정했

으나, 단기간에 국내·외에서 접수가 폭주하면서 대회 참가 최고한도인 1800명을 달성함에 따라 지난달 28일자로 자동 마감됐다. 구례군은 접수 마감 이후에도 추가 접수요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추가 접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대회에는 한국 선수가 11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필리핀, 태국 등 22개국에서 해외 선수 700여명이 접수했다.

선수들이 납부하는 참가비 수입만 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례군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가 후원하는 2017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는 특히 올해부터 226km 폴코스로 승격되면서 그 인기를 더하고 있다.

전남도와 구례군은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를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국내·외 스포츠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프대회로 공동 개최하며 빠르게 성장시켜왔다. 대회 만족도가 2015년 89%, 2016년에는 94%로 전 세계에서 열리는 100여 개의 대회 중에서 종합 만족도 9위에 오를 정

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대회 참가 선수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등 대회 흥행의 대박이 예감되고 있다”면서 “지난 3년 동안 도로통제 등 각종 불편을 겪으면서도 직접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길거리 응원을 보내주신 구례군민의 열정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철인3종경기에 앞서 오는 5월 ‘옥스팜 트레일워커’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국제 레저 스포츠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구례군 용방면에서 최근 열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개관식에서 서기동 구례군수와 김성일 전남농업기술원장, 박영근 구례군의회의장, 이창호 전남도의원 등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개관

입주 심사 35세대 선정 10개월 과정 귀농 교육

구례군이 용방면 옛 오이시협장 부지에 조성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열린 개관식에는 서기동 구례군수를 비롯한 김성일 전남농업기술원장, 박영근 구례군의회의장, 이창호 전남도의원, 교육생, 유관기관 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귀농사관학교로 첫발을 내디딘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 실행단계에 있는 도시민이 체류하면서 농촌 이해와 농촌적응 및 체계적인 귀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국비 40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28억원 등 총 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지난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11월 착공해 올 1월 준공

됐다. 총 3만1603㎡의 규모로 준공된 센터는 기숙형 1동 30실, 주택형 5동, 세미나실, 자치회의실, 교육관, 농기계보관소, 세대별 텃밭, 공동실습 농장 등을 갖추고 있다. 체류형의 모든 주택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취사시설 등의 편의시설도 완비했다.

구례군은 지난 2월 체류형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35세대를 선정했으며, 입교한 교육생들은 이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 과정으로 기초농업, 전문실습, 농촌문화 등 이론과 실습을 겸한 체계적인 귀농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교육수로 후 안정적으로 구례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융화 프로그램을 비롯한 입교자를 지역의 농가와 매칭하는 자기주도 학습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고흥군 시티투어 버스

금당팔경 유람선 코스 추가

고흥군은 “이달부터 고흥의 명소를 하루에 둘러볼 수 있는 ‘고흥 시티투어 버스’에 금당팔경 유람선 코스를 추가했다”고 7일 밝혔다.

시티투어버스 운행은 주 2회(토, 일) 오전 10시 순천역을 출발해 만남의 광장을 거쳐 녹동항, 금당팔경 유람선, 소록도를 경유하며, 오후 6시 30분 순천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금당팔경 유람선 관광은 금당도의 8가지 수려한 해상 경관을 순회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만 이용객이 3만5000여명에 이르며, 병풍바위와 부채바위, 스님바위, 교암정동, 금당절벽, 초가바위, 코끼리바위, 남근바위 등이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곡성읍 대신주말농장

딸기따기 체험 프로그램

곡성군은 “봄을 맞아 곡성읍 대신주말농장(정보화마을)에서 딸기따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딸기따기 체험 프로그램은 오는 5월까지 매주 주말마다 진행한다. 체험에 참가자들은 농장에서 딸기를 마음껏 따먹고, 수확한 딸기는 500g 팩으로 포장해 가져갈 수 있다. 딸기따기 체험 외에 딸기모찌 만들기, 딸기풍뎡 만들기 등도 체험도 할 수 있으며, 시골밥상 체험과 곡성성진강기차마을의 증기기관차도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운영되고 있다.

딸기따기 체험은 대신정보화마을 홈페이지(daesin.invil.org)나 관리자(010-4123-1030)에게 예약하면 된다. 체험료는 1인당 1만원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보성군 ‘모의 최대성 장군 420주기’ 추모제

‘의향의 고장’ 보성군이 7일 ‘모의 최대성 장군 서세 420주기’를 맞아 장군의 보국안민과 구국충절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추모행사를 가졌다. <사진>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보성지부(지부장 김중현) 주관으로 특랑면 종절사에서 열렸다. 모의장군 최대성 공은 서기 1553년(명

종 8년) 3월 7일 보성군 겸백면 사곡리에서 출생했으며,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막하 한후장으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고흥군 전국 최초 ‘정신건강 마을 지킴이’ 출범

마을 리더 200명 선정 위촉

자살 없는 지역 만들기 총력

고흥군이 전국 최초로 자살 걱정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정신건강 마을 지킴이’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박병중 고흥군수를 비롯한 마을 리더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건강

마을 지킴이’ 발대식을 했다.

‘정신건강 마을 지킴이’는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이장·부녀회장 등 마을지도자로 구성됐으며 ▲지역주민과 어울리지 못하는 ‘은둔형 주민’ 발굴 ▲외로움이나 질병에 따른 우울증 주민 발굴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원 체계 구축 ▲홀로 사는 가구의 자살예방 활동 ▲지역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고흥군은 정신건강마을 지킴이의 활동

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위기에 처한 군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병중 고흥군수는 “정신건강 마을 지킴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주민 참여 네트워크 조직으로 민관협력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사회 안전 파수꾼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독립유공자 집도 고쳐 드립니다

보성군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보성군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인 ‘행복복지사업’ 대상을 독립유공자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복지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저소득 계층의 주택을 고쳐주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의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고쳐주는 것은 물론 소형조식식이나 이동식 컨테이너 하우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저소득 계층 8가구의 주택을 고쳐줬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업량을 2배 늘려 16가구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한

다.

올해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물론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독립유공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업비의 150% 범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단 순 미관 개선, 도배·장판 교체에서 벗어난 주택구조 개선, 전기·가스 등 주거안전시설 정비, 단열·누수 수선, 화장실 등 생활 편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주택 개·보수가 시급한 대상자를 지난달 말까지 추천받았으며 이달 중 민관이 함께 현지조사를 벌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깔끔 / 주차 완비

매 가 1억1천만

010-7384-7800

동구 수기동

상가 매매

20층 중 6층

◆ 평수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

주차 완비

▶매가 1억4천 (웅 5천)

062-527-7600

상무지구

상가매매

10층 중 6층 (23평) 코너자리

리모델링 완비/투룸 가능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 300만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걸름)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점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광양사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음식점,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37억

■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

토 48평, 건 160평

서부소방서 1분

4차선 도로 접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톨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4억2천

■ 광산구 송월동 (상가건물)

토 226평, 건 86평

광주 송정역 / 광산구청 1분

2차선 도로 접 / 코너 자리

▶감정가 14억5천 → 최저가 14억5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6670-9800

062-527-7600